「202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 종합심사평

「202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에 응모해 주신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2,967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총 3단계(예심 · 본심 · 최종심)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재택 심사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182명의 심사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총 46편의 최종 후보작들은 사극과 시대극 작품들이 많았으며, 다채로운 소재와 주제 의식을 다룬 작가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을 보여준 다수의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종부시 박무결〉은 조선시대 기존 사극에서 본 적 없는 직책, 종부시를 소재로 '종친 부패를 감찰' 하는 캐릭터를 통해 통쾌한 복수와 현대 사회 비판의 풍자를 이끌어내었고, 완성도 있는 서사구조를 통해 작품성까지 이끌어 내어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며 상업성까지 갖춘 작품으로 평가하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상으로는 〈삼후실〉, 〈법외인간〉, 〈마마〉, 〈상기 설옥의 숙설소 살인사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삼후실〉은 훈민정음 상용화를 위해 후궁들이 일하는 삼후실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조선판 오피스 수작입니다. 〈법외인간〉은 법이 없는 세상, 사형 대신 추방된 사람들에게 사적 보복이 허용된다는 설정의 디스토피아 수작입니다. 〈마마〉는 딸에게 욕망을 투영한 엄마의 이야기를 공포라는 장르로 풀어낸 매력적인 수작입니다. 〈상기 설옥의 숙설소 살인사건〉은 조선시대 연회를 위한 임시주방 숙설소에서 벌어진 상궁의 죽음을 둘러싼 추리물을 서구식 시간 제한적 탐정물 형식으로 풀어내어 참신한 사극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수상으로는 〈바라고 바라옵건대〉, 〈홍무영〉, 〈러브 오어 킬〉, 〈마지막 손님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가 없는 다음날의 세상은〉, 〈순수한 증오의 숲〉, 〈독경사〉, 〈휀걸〉, 〈흡혈군관 소기파〉, 〈월간 모단걸〉 10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15개 작품을 2026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스토리부문은 이야기의 독창성과 시장성, 완성도와 제작 가능성 및 다른 장르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해야하는 어려운 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진 창작자들을 발굴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자들의 작품이 모두 실질적인 콘텐츠로 시청자와 독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내년에도 많은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